

이탈리아 섬유 산업의 근황

일본의 섬유 기술자 단체에서 조사한 이탈리아 섬유 산업의 최근 상황을 소개한다.

◎ 혼미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

먼저 이탈리아 전체의 경제 사정을 살펴보면, 경제 동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희망적인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2002년에 이탈리아의 화폐, 리라(lira)가 유로(euro)로 바뀌면서, 이 교체하는 기회를 틈탄 값 올리기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수년 동안 2~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도 2004년의 예상으로는 1.2%로 일본의 2.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에는 이탈리아적인 경영 수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원이 5명 이하의 기업을 보면, 이탈리아의 전 기업 중에서 9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15명 이하의 기업은 99%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가족 경영 형태 기업의 비율이 극히 높으며, 중소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침체된 경제가 호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왜 대기업이 적은가? 이는 1950~60년대 심한 노사 분규가 오래 계속되어 대기업들이 와해되었다는 것과, 16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되면 사회 보장비가 커지고, 인원 정리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배경이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섬유 산업은 다른 업종처럼 가족 경영에 의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노동 쟁의 영향으로 수직 종합 섬유 회사가 해체되고 직역 노동 조합이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텍스타일과 관련해서는 패션 동향에 따라 휘둘리기 때문에 큰 기업은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것이 현 상태이다. 따라서 패션 업계를 리드하는 이탈리아 섬유 업계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섞여 있다는 것이 실정인 것 같다.

◎ 활동력이 강한 컨버터들

이탈리아의 섬유 산업도 일본이 그 동안 당한 것 같이, 중국으로부터 값싼 섬유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가족 경영의 기업이 섬유 산업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 수입만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강하여, 결과적으로 한계를 보이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독자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는데, 체력적으로 규모가 큰 신기술을 개발해 낼 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기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힘을 만들어 내는 컨버터(converter, 2차 가공 업자와 상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중간 업자)의 역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직 통합 섬유 회사가 해체되면서 큰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던 생산 시설을 확보한 사람들이 새로운 소기업을 일으켰으며, 지금의 컨버터도 생기게 되었다. 현 상태는 생산 설비가 있던 없던 간에 기획력과 기동력이 있는 기업이 섬유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컨버터는 생산 회사와는 매우 대등한 관계이며, 큰 기업에 지지 않는 퍼포먼스와 기동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 컨버터들은 전시회를 상담하는 장소로 보고 가장 중요시하고 끈질긴 상품 개발력을 보여줌으로써 상담하려는 사람이 줄 서 있는 부스

(booth, 전시용 박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컨버터 자신이 디자인 오피스(design office)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단이 방문한 “만테로사”는 종업원이 800명으로서 섬유 업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손꼽히는 큰 기업이며, 유럽의 유명 브랜드 등의 OEM 생산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생지 샘플이나 자료가 라이브러리(library)에 잘 보관되어 활용되고 있어 일본의 기업들도 배울 점이 많았다.

이곳의 섬유 산지는 경제 전반의 불황, 패션의 변화, 중국·동구권으로부터 제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생산이 위축되고 있으며, 실크에 관련된 사업의 중심인 “고모” 지구는, 불황에 빠져있는 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섬유 산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민족성 때문인지 고향 땅을 떠나려 하지 않으므로, 업계의 정보가 모두 동일하여 변화가 없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의 제조 기술을 지금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지, 선진적인 과제는 없다는 날카로운 의견도 있었다.

◎ EU와 연동된 교육이 진전

일본 조사단은 이탈리아의 섬유 관계 교육 사정을 보기 위하여 “비에라” 학술 연구 도시를 방문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섬유의 최고 학부인 트리노대학 섬유 학부를 알아보았다.

이 대학의 학사 과정은 3년제로서 180 단위가 졸업의 기준이 된다. 1단위는 30시간이며, 단순히 계산하면 5,400시간을 공부하여야 졸업하게 되며, 이 기준은 상당히 공부 과정이 큰 편이다. 석사 과정은 2년제로 120단위, 박사 과정은 1년제로 60단위로 되어 있다.

학업 중의 퇴학률은 전국의 섬유 학부는 65%이나, 이 대학의 섬유학부는 20%이며, 유급률(留級率)은 전국 섬유 학부는 70%인데, 이 대학의 섬유는 30%로 다른 섬유 대학보다는 우수하다. 졸업 후 3개월 내 취직률은 70%, 1년 이내에는 거의 100% 취직이 된다. 그 취직의 내역은 당연히 섬유 관련이 80%로 가장 많다. 이탈리아 전국 학생의 질적 수준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수의 우수한 학생은 섬유 제조업보다도 패션이나 마케팅 기업에 흥미가 많은 것 같다.

패션이나 디자인과 같은 분야에서는 역시 침단을 가고 있다. 중국 학생도 패션을 배우려면 일본보다도 이탈리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다.

섬유 학부의 주요 연구 테마는 초임계 유체 염색(超臨界流體染色), 섬유 마무리 공정의 물의 리사이클, 후가공을 테마로 한 것이 아주 많다.

다만 교육은 이탈리아 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 섬유 대학원 E팀을 결성하고, 전 유럽의 주요 대학과 연구 기관이 연동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움직임도 생겼다. 각 대학은 기존 섬유 프로그램의 성과를 서로 도우며 높여 최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학생은 4~6개월 간은 한 대학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3개 대학을 순회한다.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서는 임의의 대학을 선택하여 논문을 완성시킨다.

새로운 섬유에 대한 연구력은 강하지 않으나, EU의 대학, 연구소가 제휴한 섬유 연구가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

◎ 일본의 아직도 섬유에서는 승산이 있다.

이탈리아 섬유 산업에는 잉크 젯 프린터(ink jet printer)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고 한다. 고모 지구에서는 많은 염색 가공 공장들이 잉크 젯 프린터 1대를 돌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섬유 가공 기계 메이커로서는 “미마키”가 잘 알려져 있었다. 잉크 젯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비율은 늘어날 것 같다.

이 조사단에서는, 이번 이탈리아 방문에 일본에서 만든 시험 제작 샘플을 갖고 가서 방문처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만테로사에서는 “구루메 가스리(久留米紘)”, “오지야(小千谷) 지리멘” 등의 일본 전통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고모 지구의 실크 연구소에서는 실크를 정련하지 않아도 되는 헤이안(平安) 유지화학공업의 신형질 생사의 “다지마(直馬) 아카리”에 많은 눈길이 쏠렸다. 이는 실크 정련에 따라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문제 때문으로 짐작된다. 시험 제작 샘플을 방문처에 제안하면서 소재의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완성품을 제안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이탈리아 섬유 업계는 어디까지나 현물 주의이므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한 상품을 시험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천연 소재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겠는데, 합섬은 아직도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상이다. 합섬에 대한 이론이나 기능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기초 연구 등에서 일본이나 독일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면도 있으며, 오히려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복합사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섬유 산업이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는 힌트가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 섬유 기술자들의 조사에 따른 의견으로서 ①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과 일본의 전통 기술의 융합 ② 일본 기업의 독자성·우위성을 철저하게

추구 ③ 일본 섬유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천직 의식 개혁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